

원로·청년 작가 아픔 보듬으며 시대 아우르다

CULTURE

2025년 3월 31일 월요일

‘동백의 화가’로 불리며 여수지역 간판 화가의 전시 등이 마련돼 관람객들을 만나고 있다.

먼저 지난 28일 개막, 오는 5월 25일까지 전남도립미술관에서 같은 기간에 ‘동백, 시간의 얼굴’이라는 타이틀로 열리고 있는 여수 출신 강종열 초대전과 ‘사라진 문을 두드릴 때’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청년작가전이 그것.

이번 전시는 전남도립미술관이 전남미술사 정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지역 출신 작가를 연구하고 예술세계를 조명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존재와 생명력을 탐구하며 독자적인 화풍을 구축해 온 강 작가의 전시를 준비했다.

강 작가는 병생을 고향 여수에 머물며 강렬한 색감과 독창적인 필법을 통해 한국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성찰해 왔다.

이번 전시는 자연과 역사, 삶의 현장을 깊이 있게 포착해 온 작가의 시선을 통해 한국 현대회화의 서정을 확인하는 작품을 보여준다. ‘동백, 시간의 얼굴’전은 동티모르 체류시절 경험한 아픈 역사와 희망, 동백꽃으로 그린 현대사, 시대의 무게를 그린 여수 사건, 그리고 작가의 예술적 뿌리이며, 삶의 원천인 여수 풍경 등 네 개의 주제로 구성된다.

1부 ‘상흔의 기억, 동티모르’는 강렬한 색감과 이국적인 풍경 속 인물화를 통해 동티모르의 역사와 일상을 조명한다. 산타크루스 대학살과 독립 이후의 혼란을 겪은 주민들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며, 전쟁과 빈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의 생명력을 보여준다.

또 2부 ‘생명의 희망, 그리고 동백’은 여수의 동백숲과 바다 풍경, 작가의 작업실에서 마주한 다양한 자연 소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오랜 시간에 걸쳐 그려온 ‘동백’ 연작을 통해 생명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한다.

여수 출신 강종열전 5월 25일까지 네 주제로 구성

케이윤·이창현·조은솔...깊은 통찰·기록의 의미도

3부 ‘멈춰진 시간’은 여수사건을 다룬 대형 회화와 목판화 연작을 통해 지역의 아픈 역사를 기억한다. 강 작가는 예술가로써의 소명을 바탕으로 여수 사건을 화폭에 담아냈으며,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과 기록의 의미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4부 ‘시간의 얼굴은’ 작업실 뒤편에 살던 어부 ‘조씨 영감’의 삶을 담은 연작이다.

바닷바람 속 생계를 이어온 조씨의 이야기를 작가 특유의 표현주의적 화법으로 그려낸 작품들로, 한 인물의 삶을 통해 시간의 흐름과 인간의 존재를 성찰한다.

이어 열리는 청년작가전은 전남 출신 원로작가와 청년작가를 함께 조명하며,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미술적 사유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청년작가전은 케이윤, 이창현, 조은솔 등 세 명의 작가가 참여하며, 기억과 경계, 정체성의 형성과 해체 과정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탐구한다.

기억은 단순한 과거의 보존이 아니라 현재를 구성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힘이라고 하는 가운데 이번 전시는 기억이 경계를 형성하고 허무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서사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시각화한다.

관객은 작품을 통해 자신만의 기억을 환기하고, 익숙한 경계를 넘어서 감각적 경험을 보여주는 작품을 선보인다.

케이윤 작가는 공간과 보이지 않는 경계를 탐구하며, 개인의 경험과 문화가 만나는 지점을 감각적으로 시각화하는 작업을 보여주고, 이창현 작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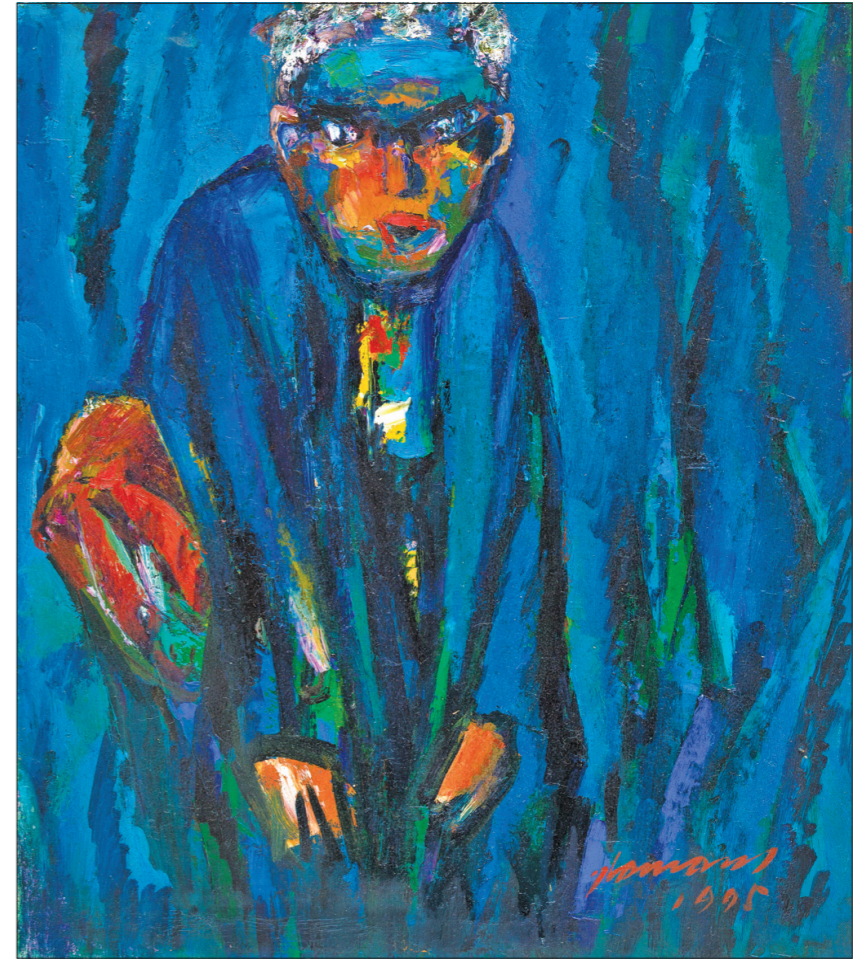


청년작가전 이창현 작 '구도'

신체와 의복 사이의 관계를 매개로 역사와 정체성을 성찰하며, 누락되거나 지워진 기억의 조각들을 다시 불러낸다.

조은솔 작가는 존재와 생명, 환경이 연결된 유기적 흐름 속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펼친다.

이 전시는 관람객에게 ‘기억’이라는 내면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예술이 기억을 어



강종열 작 '조씨의 하루'

떻게 확장하고 새롭게 해석하는지를 탐색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이지호 관장은 “이번 전시는 반세기 넘게 지역에 뿌리내리며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해 온 강 작가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작가들의 시선을 함께 조명, 세대와 시대를 아우르는 깊이 있는 미술적 성찰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삶과 자연, 기억과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탐

구한 두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내면을 돌아보고 예술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시연계 행사로 ‘청년작가 3인 아티스트 토크’는 4월 5일 오후 2시에, ‘강종열 작가와의 대화’는 4월 19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4월 3일 오후 3시.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인기도서 ‘식물적 낙관’ 김금희 작가 만남

亞문화전당, ‘도서관과 이야기’ 북토크 내달 5일 극장3

‘식물 하는 마음’ 주제... 두 달 간 연계 일러스트전도



김금희 작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직무대리 김상욱)은 인기도서 ‘식물적 낙관’, ‘대운실 수리 보고서’의 저자 김금희 작가를 초청, ‘ACC 도서관과 이야기: 식물 하는 마음 북토크’를 오는 5일 극장3에서 연다. 또 이와 연계한 ‘ACC 도서관 미니원화전: 식물적 낙관 일러스트’전을 오는 4월부터 두 달간 ACC 도서관 이벤트를 통해 진행한다.

먼저 북토크에서 김 작가는 자신의 신문집 ‘식물적 낙관’에 나오는 ‘식물 하는 마음’을 주제로 시민과 만난다. 또 이날 김 작가는 최근 작품 ‘대운실 수리 보고서’, ‘나의 풀라 일지’ 등에 대한 집필 이야기도 함께 나눌 예정이다.

‘식물적 낙관’은 작가의 발코니 정원에 찾아온 연약하고도 강인한 식물들을 통한 깨달음을 적고 식물을 통해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 만들어 낸 긍정적인 순간들에 대한 기록이다. 이 책을 통해 인간과 함께 계절을 순환하는 식물의 낙관적인 에너지를 만날 수 있다.

김 작가는 200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작

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센티멘털도 하루 이틀’, ‘너무 한낮의 연애’, 장편소설 ‘경애의 마음’, ‘대운실 수리 보고서’, 산문집 ‘사랑 밖의 모든 말들’, ‘식물적 낙관’, ‘나의 풀라 일지’ 등이 있다. 또 김 작가는 신동엽문학상, 젊은 작가상 대상, 현대문학상, 우현예술상, 김승옥 문학상 대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또 ACC는 책이 단순히 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표지나 삽화 등을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가 합쳐진 복합 콘텐츠를 알리고자 미니원화전도 함께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라키텍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식물적 낙관’ 책 속의 다양한 원화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라키텍 일러스트레이터는 자연의 색깔을 따뜻한 시선으로 표현하는 방식의 작업을 하며, 식물 본연의 편안인 모습에서 인간의 마음의 안정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김 작가의 글과 어우러져 책에 더욱 건강한 기운을 불어 넣는다.

북토크 신청은 ACC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김다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

전남도립국악단, ‘시즌2’ 내달 5일부터 남도소리올림터

타악 앙상블·이매방류 승무·판페라 이순신 등 선봬

따뜻한 봄날을 맞아 메달렸던 감성을 가득 채워 줄 국악 무대가 펼쳐진다.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조용안)의 토요가무악회 그린국악 시즌2가 오는 4월 5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전남 무안군 소재 남도소리올림터 공연장에서 열린다.

‘나의 무대, 나의 그린국악’(Draw my green stage)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시즌에서는 단원 개인의 예술세계를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을 다수 선보일 예정이다. 타악 앙상블 ‘락나악’(樂樂樂)을 시작으로, 3인 3색 ‘이매방류 승무’, 철현금 산조 병주 등 단원이 직접 창작하거나 재구성한 작품들을 시즌2 전반에 걸쳐 만나볼 수 있다.

오랜만에 선보이는 전남도립국악단 대표 브랜드 공연들도 다채롭다. 4월 17일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해 오라토리요 집체극 ‘봄날’을 간추려 선보이고, 마지막 주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제480주년을 맞아 ‘판페라 이순신’ 하이라이트를 무대에 올린다.

또 5월 3일에는 어린이날 특집공연으로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 단원들과 어린이국악단 출신 청년 국악인들이 특별출연해 함께 무대를 꾸민다. 이날 공연장을 찾는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객들을 위해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6월 14일은 지난해부터 선보인 국공립 예술단체 교류공연 ‘국악이음’ 그 세 번째 이음을



전남도립국악단 공연 모습.

만나본다.

아시아 주요 오페스트라로 급성장하고 있는 경기필하모닉오페스트라(예술감독 김선욱)가 환상의 클래식 선율로 고풍적 무대를 선사한다.

김다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

삶은 시간 여행...화폭에 설림과 행복 채우기

배유미 개인전 내달 8일까지 갤러리 자리아트

배유미 작가의 개인전이 지난 26일 개막, 오는 4월 8일까지 갤러리 자리아트에서 ‘빛으로 물들다’라는 타이틀로 열린다.

작가는 삶을 하나의 시간 여행이라고 여기면 인생이라는 책의 페이지를 온통 설림과 행복으로 채울 수 있다는 시각이다.

작가는 익숙한 우리의 일상을 그린 시선들로 담아내고자 했고, 평범해 보일 수 있는 풍경들은 캔버스 안에서 빛으로 가득 찬 파라다이스로 재탄생시켰다. 슬픔이나 아픔, 고통을 잠시 잊고 그 순간의 충만한 행복을 오롯이 느껴볼 수 있는 것이 여행이고 그럴만한 공간이 도시라는 인식이다. 그의 작품들은 그렇게 시작된 여행길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캔버스에는 그 길 위에서 만난 풍경이 있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리고 그들이 지닌 소소한 사연, 이야기가 담겨있다는 설명이다.

또 도시를 인간의 이성이 이룩한 문명의 절정이라고 부르지만 캔버스 안 도시 속에는 어루만지는 자연의 손길이 묻어나온다. 도시를 휘감아 흐르고 있는 강물, 그 도시의 품을 향해 손 뻗고 있는 바다. 야경의 빛을 파스하게 품었다 반사하는 하늘이 있다.

이처럼 도심 곳곳에 은화한 자연의 모습이 살아 있다는 반응이다. 특히 우리를 지구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여



'paradise'

행자라 여길 때 그 어떤 곳이란 바로 지금 자신이 있는 곳이 안식처라는 풀이다. 어떤 곳이란 그곳만의 무궁한 즐거움과 평안을 발견해내는 동시에 세상과 우주를 조감하는 시선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시공간을 초월하는 무한한 자유를 획득한다는 것이다. 여정 자체를 즐기며, 지금, 이 순간을 자신만의 파라다이스로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배유미 작가는 홍익대 미술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했으며, 2024 갤러리 썬 기획초대전(서울)을 비롯한 개인전과 월드아트무비, 영국 에든버러 아트페어, 부산국제회화아트페어(BAMA) 등 아트페어 30여회에 출품했다. BIFF 백년화 특별전 등 그룹전 및 기획전 다수 참여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여성가족재단,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 교육생 모집

강좌 4월 10일부터 6월 5일까지 격주 목요일 진행

(재)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례)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페미니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 교육생을 모집한다.

광주여성성의전화와 협력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4월 10일부터 6월 5일까지 격주 목요일마다 재단 4층 강의실 및 광주여성성의전화 강의실에서 페미니즘의 진화와 실천적 방향성을 탐구하는 특별 강좌로 진행된다.

젠더폭력 지원기관 및 여성단체 활동가, 성평등

강사 등 15명 내외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기존 페미니즘 이론을 넘어 현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페미니즘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 이번 강좌는 젠더 연구 분야에서 깊은 연구와 경험을 가진 노고은 전남대 문화인류고고학과 교수가 이끈다. 사회구성주의, 젠더, 섹스, 섹슈얼리티를 이해하고, 페미니즘의 문화적 해석을 통해 전통적인 사고의 틀을 넘어서는 방법을 제시한다. 문의 062-670-0531.

김다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